

KIA 꿀찌 탈출, 베테랑에 달렸다



주장 안치홍, 팀 타선 깨우고 분위기 쇄신 임무
김주찬·나지완, 최선 다한 플레이로 솔선수범해야
이대진 투수 코치, 성적 부진 책임지고 사퇴

‘위기의 베테랑’들이 시험대에 오른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주축 야수진의 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구단 창단 이후 처음으로 10위 자리에 랭크됐고, 반전의 키를 찾지 못한 김기태 감독은 지난 16일 KT전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흥식 감독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풀어가게 된 KIA 성적의 중요 변수는 역시 ‘베테랑’이다.

내부 경쟁에 불이 붙은 상승세의 마운드와 달리 야수진의 격차는 아직 크다. 경험 적은 선수가 많은 만큼 베테랑들이 그라운드 안팎에서 실력과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

일단 안치홍의 어깨가 무겁다.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김주찬을 대신해 지난 15일 ‘임시 주장’을 맡았던 안치홍이 정식 주장으로 남은 시즌을 풀어가게 됐다. 올 시즌 부상과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김주찬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층 어려운 선수단을 효과적으로 아우르기 위한 방안이다. 김주찬은 팀의 ‘최고참’으로 막내 장지수와는 19살 차이가 난다.

김주찬을 대신해 팀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안치홍에게도 마음 편한 시즌은 아니다.

21일 경기 전까지 43경기에 나온 안치홍은 0.288의 타율과 함께 18타점에 머물고 있다. 특히 득점권 타율이 0.176에 그치면서 기대했던 역할에는 한참 부족하다. 여기에 ‘에이 FA’라는 신분도 안치홍의 마음을 급하게 한다.

침체한 KIA 타선을 깨우고, 팀 분위기를까지 띄워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만큼 안치홍의 성적에 팀의 귀적이 맞물려 있다. 김주찬과 나지완은 새 출발선에 선다.

박 감독대행은 21일 ‘내일 김주찬과 나지완이 등록된다. 2군에서 열심히 뛰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었다’며 두 베테랑의 복귀를 예고했다.

김주찬과 나지완은 지난 12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김주찬은 수비 도중 우측 손바닥을 다쳐 재활군이 됐고, 나지완은 득점권에서 부진을 거듭해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팀을 대표하는 타자이자 ‘만행’과 ‘넘버 3’인 두 사람은 앞선 부진을 만회하는 성적표를 내야 한다. 또 박 감독대행이 강조하는 최선을 다한 플레이로 솔선수범도 보여줘야 한다.

김주찬은 올 시즌 홈런 없이 113타수 24안타(타율 0.224), 28타점 3볼넷 15삼진을 남겼다. 득점권에서는 0.314의 타율을 보였지만 3개의 실책을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도 역할이 부족했다.

나지완은 올 시즌 68타수 14안타(타율 0.206) 4홈런 29타점 9볼넷 20삼진을 기록하고 있다. 득점권 타율은 0.176.

‘팀워크’를 강조한 박 감독대행은 ‘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 선수들도 자신감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타석에서도 쉽게 물러나지 않는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하위 주력의 직·간접 장본인으로 꼽히는 베테랑들이 달라진 모습으로 팀의 반등을 이끌고 자신임을 얻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7일 잔류군으로 물러났던 이대진 투수 코치가 김기태 감독이 사퇴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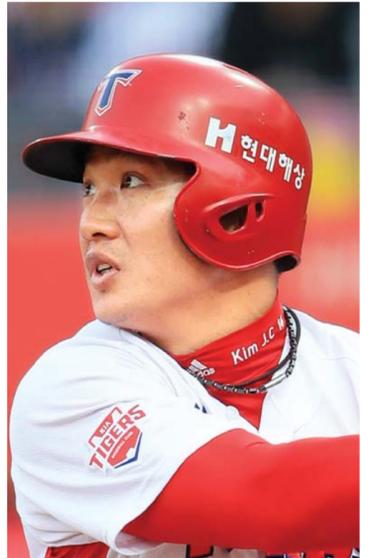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치홍



나지완



김주찬

덕아웃 T 특특

▲무조건 슬라이딩했어야죠= 다시 돌아가면 슬라이딩을 하겠다는 이명기. 지난 19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이명기는 희생 번트로 득점을 기록할 뻔했다. 2-0으로 앞선 무사 1루에서 타석에 선 이명기는 투수 앞으로 번트 타구를 보냈다. 상대 선발 김민우가 1루로 약수구를 했고, 외야로 흘러간 공을 처리하던 우익수 이성열의 실책까지 겹쳤다. 그사이 1루에 있던 터커가 홈에 들어왔고 이명기도 홈까지 진루를 시도했다.

타이밍상으로는 세이프가 될 것 같았지만, 이명기는 높게 송구된 공을 잡으려던 포수 최재훈에 막혀 베이스를 찍지 못했다.

KIA는 ‘최재훈이 홈을 막은 것 아니냐’는 어필과 함께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원시대로 아웃이었다. 이명기는 “내 잘못이다. 판단 미스

4안타 불방망이 박찬호 “그냥 맞았어요”

였다. 무조건 슬라이딩을 해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냥 맞았어요 = 이유를 모르는 박찬호의 뜨거운 타격이다. 박찬호는 지난 19일 대전원정에서 생애 첫 4안타 경기를 하면 주목을 받았다. 원정을 떠나기 전 “공이 눈에 잘 보이는데 잘 맞지 않는다. 빗맞는다”며 한숨을 쉬었던 박찬호의 놀라운 반전이였다. 4안타 비결을 묻는 말에 한참 고민을 하던 박찬호는 “똑같은데 컨디션이 좋은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것도 같고 스윙도 같은 것 같은데 그냥 맞았다. 모두 정타였다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고 웃었다. 또 “3안타도 쳤는데 하나 더 못 치겠냐는 생각이었다. 몇 개를 쳐도 안타 욕심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미소를 지었다.

▲차명진입니다 = KIA의 5선발 오디션에 또 다른 경쟁자가 뛰어들다. 박흥식 감독 대행은 21일 선발진 운영에 관한 질문을 받은 뒤 “강이준은 경험도 쌓고 육성해야 하는 선수다. 2군에서 자신감 많이 생기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강이준의 대체 선발로는 차명진을 언급했다. 김 감독은 “앞선 강이준 등판 경기날 차명진의 투구 개수를 늘린 게 선발을 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차명진의 선발 등판을 예고했다. 효천고 출신의 차명진은 지난 2014년 KIA의 우선지명으로 입단한 고졸 6년 차 선수. 팔꿈치 수술과 군복무로 인해 공백이 있었던 그는 지난 16일 KT전을 통해 프로 데뷔전을 치른 ‘늦깎이 신인’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사이영상 ‘성큼’

ESPN·톰 뎡고 포인트 NL 1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31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으로 승승장구하는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투수 최고의 영예인 사이영상 예측 순위에서 1위를 질주했다.

류현진은 20일 현재 미국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 ESPN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이영상 예측 순위에서 74.9점을 획득해 내셔널 리그 1위를 질주했다.

2위는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 켈리 안선(61.6점)으로 류현진보다 크게 뒤처진다.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다승(6승) 공동 1위, 평균자책점 1위(1.52), 이닝당출루허용률(WHIP:0.74) 1위, 탈삼진/볼넷 비율 압도적 1위(14.75)를 달렸다.

ESPN 사이영상 예측은 야구통계의 선구자인 빌 제임스와 ESPN 칼럼니스트 톰 네이아가 함께 만든 공식으로 순위를 매긴다.

투구이닝, 자책점, 탈삼진, 승패 수 등을 복잡한 공식에 대입하고, 소속팀이 지구 1위를 달리면 승리 보너스 12점을 추가로 얻는다.

투수 개인도 잘 던지고, 팀도 잘 나가야 사이영상 예측 지수에서도 득을 본다.

류현진은 또 다른 사이영상 예측 트래커인 톰 뎡고 사이영상 포인트에서도 내셔널리그 1위에 올랐다.

야구 통계 전문가 톰 뎡고가 고안한 사이영상 포인트 계산법은 ESPN 공식보다 단순하다.

먼저 투구 이닝을 2로 나눈 수치에서 자책점을 뺀다. 또 탈삼진을 10으로 나눈 수치와 승수 등 세 항목을 더해 점수를 계산한다.

공식의 특성상 많은 이닝을 던지고, 자책점을 적게 남기고, 탈삼진과 승수가 높을수록 톰 뎡고 포인트에서 고득점 한다.

한 통계 사이트는 톰 뎡고 사이영상 포인트가 2006년 이래 사이영상 수상자 예측에서 ESPN 사이영상 포인트보다 더 나은 적중률을 보였다고 평했다.

/연습뉴스

광주 vs 부산 불꽃 튀는 ‘1위 전쟁’

광주 FC, K리그2 12경기 무패
2위 부산과 승점 2점차 ‘박빙’

광주FC와 부산아이파크의 1위 싸움은 ‘끝까지 간다.’

광주는 지난 2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 2019 K리그2 12라운드 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뒀다.

‘해결사’ 펠리페가 왼 새끼발가락 타박상으로 결장했지만 전반 29분과 전반 39분 이오름의 그림 같은 패스에 이어, 김정환과 윌리안의 시즌 첫 골이 연달아 기록됐다.

2-1로 쫓긴 후반 34분에는 여름이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서울이랜드의 골망을 다시 출렁거리게 했다. 이 골과 함께 광주는 팀 역대 최다 무패 기록을 ‘12경기’로 경신했다.

광주는 개막 후 단 한 경기도 지지 않고 7승5무(승점 26)의 질주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부지런히 무패행진을 이어왔지만 2위 부산과는 승점 2점 차에 불과하다.

숨 막히는 두 팀의 쫓고 쫓기는 1위 싸움이다. 광주는 지난 12일 비장한 각오로 부산으로 향했다.

이날 경기에 따라서 두 팀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만큼 선수들은 치열한 기싸움과 몸싸움을 벌였다. 몇 차례 양 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충돌하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그리고 홈팬들의 응원 속에 부산이 거칠게 광주를 몰아붙이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0-1로 뒤진 후반 종료 직전 펠리페가 극적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직접 키커로 나서 ‘1위 수상’을 알리는 골을 터트렸다.

어렵게 1-1 무승부를 이루며 승점 2점 차 1위를 지킨 광주와 또다시 추격에 그친 부산.

20일 다시 한번 두 팀이 1위 싸움에 나섰다. ‘월요일 축구’가 있었던 이날 공교롭게도 광주와 부산이 각각 서울이랜드와 부천FC를 상대로 12라운드 경



기를 펼친 것이다.

축구 팬들의 눈길은 광주월드컵경기장과 부천종합운동장에 동시에 쏠렸다.

선제골은 광주에서 먼저 나왔다. 전반 29분 김정환의 시즌 첫 골과 함께 광주가 승리를 위해 먼저 움직였다. 하지만 부산도 전반 38분 이정협의 골로 리드를 잡았다.

광주가 윌리안의 골로 2-0으로 전반전을 마감했고, 부산은 후반 12분에 나온 이정협의 골로 2-0으

로 다시 균형을 맞췄다.

이후 두 팀은 나란히 실점하면서 2-1 상황에서 후반 막바지로 향했다.

후반 34분에 광주의 여름이 세 번째 골을 넣자 부산도 39분 김진규의 골로 3-1을 만들었다. 그리고 추가 득점과 실점 없이 경기가 마감되면서 두 팀의 승점 차와 득점 차는 그대로 유지됐다.

환상적인 골 퍼레이드로 승리를 완성한 광주도 여전히 득점력으로 추격에 나섰다 부산도 모두 아

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였지만, 팬들에게는 눈을 땔 수 없는 흥미로운 1위 레이스다.

박진섭 감독은 “부산도 강팀이고 똑같이 승격을 위해서 싸우는 팀이다. 따로 경기 해도 상대를 신경 쓰고 있다. 따라가느냐 따라가느냐 싸움인 것 같은데 상대도 잘하고 있어서 (승점 차를) 벌리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좋은 경기 모습 보이면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